

제10회 전국초·중학생 발명작문·만화현상모집

입상자 시상식 성황리 끝내 응모자 1,220명중 133명 뽑혀 상받아



〈본회 이태섭부회장의 시상〉

본회가 상공부등 4개 정부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등 10개 단체 후원 및 「럭키 금성 그룹」의 협찬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발명하고 과학하는 마음을 심어서 이를 집화로 전국민에게 발명진흥사상을 앙양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10회전국 초·중학생 발명작문·만화 현상모집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12월 4일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다.

차수명 특허청장을 비롯 이태섭 본회 부회장과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임석재 대한변리사회 회장·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제열 부회장·(주)금성사 박수환 전부·한국과학기술재단 한원석전부 그리고 입상자 가족·친지·지도교

사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응모자 1,220명중에서 뽑힌 국민학생부 작문부문 최우수상인 상공부장관상에 걸

진필어린이 (군산 중앙국교 6학년) 등 133명이 상장과 상품을 받았으며, 최우수상·우수상·佳作상 입상자에게는 각각 30만원·15만원·5만원씩의 장학금도 전달되었다. (입상자 명단은 본지 11월호 참고)

또 최우수상을 받은 어린이를 지도한 임상순(충남 천안북자여중) 교사등 6명에게는 지도교사상(특허청장상)이 주어졌으며,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의 학교장에게도 본회 회장의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한편 시상식이 끝난후 입상자 전원과 지도교사는 이번 행사의 협찬 기업인 럭키금성그룹 금성사 평택공장을 비롯하여 현충사→금성사 구미공장→포항종합제철(주)→불국사등 2박 3일간의 산업시찰도 했다.

日本 工業所有權 專門家招請 講演會

日, 辨理士...日本の 知的所有權保護等 講義

本會는 지난 11月 29日 오후 2時부터 5時까지 特許廳 17층 研修室에서 日本工業所有權專門家 招請講演會를 開催했다.

本會 會員企業 特許管理專擔要員·辨理士·特許廳 職員등 180名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이날 講演會에서는 松居祥二씨 (日本辨理士)의 「日本の 物質特許制度」, 川口義雄씨 (日本辨理士)의 「日本·美國·EPO 간의 工業所有權制度 比較」, 山上和則씨 (日本辨理士·辯護士)의 「日本の 컴퓨터 소프트웨어 保護」등의 講演이 特許廳 李瑠雨 금속심사담당관의 통역으로 進행되었다.